

의학정보의 현재와 전망

상명대학교 문헌정보학,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고문

윤 영 대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가 사단법인체로 등록되어 새 출발하게 된 것을 축하하며 이를 계기로 더욱 발전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뜻 깊은 축하 행사에 특별 강연을 하게된 것을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학도서관의 예명이라 할 수 있는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 창립당시와 과거에 비추어 현재의 의학정보현황을 비교해 보고 미래의 의학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과제를 언급하고자 합니다.

서양의학이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부산에 일본인에 의하여 제생의원이 설립된 1877년과 미국 선교회에 의하여 광혜원이 설립된 1885년이라 볼 때 해방된 1945년은 서양의학이 도입된 후 불과 60년 남짓한 기간이 지났고 당시의 의학교육기관은 몇 개 되지도 않았으며 1908년에 세브란스 의학교에 도서관을 설립하였다는 사실 외에는 별다른 기록이 없어 의학도서관의 확실한 정황은 알 수 없으나 의학교육기관에 도서관이 몇 개 있었겠지만 장서나 시설은 보잘 것 없는 상황이었으리라 짐작됩니다.

해방되고 5년 후에는 육이오 사변을 겪으면서 사정은 더욱 어려워졌고 해방 이후 의학도서관 협의회가 창립된 1960년대까지 몇 개의 의과대학들이 더 설립되었지만 역시 의학도서관은 거의 불모지 상태였습니다.

당시 빈약한 장서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서울

시내 5개 의과대학(가톨릭, 서울, 연세, 우석, 이화의대) 도서관들은 비공식적이었지만 상호대차 등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1968년에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가 창설되면서 우리나라 의학도서관의 예명기를 열었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시 미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의 Oriental Area Specialist이었던 Dr. Stephen Kim (한국명 金承濟博士)이 내한하여 필자에게 국내의학도서관들이 상호 협력할 수 있는 협력체를 구성할 것을 충고하여 준 것이 한국의학도서관 협의회가 창립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가톨릭의대 도서관에 많은 의학 장서를 기증하여 주었고 미국립의학도서관의 장서를 상호 대차로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어(비용은 AID 자금에서 지출) 당시의 빈약한 국내 사정에서 의학도서관과 의학 연구자들은 크게 혜택을 받았으며 그분으로부터 필자가 의학도서 전문 분류표인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lassification을 소개받아 가톨릭의대 도서관의 새로운 분류표로 채택, 사용하면서 신설의학도서관에 권고하기 시작하여 현재는 대부분의 의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협의회 초창기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상호대차를 위한 종합목록이었으나 이를 출판할 재정을 마련할 길이 없을 때 한림대학 이 사장이셨고 후에 본 협의회 회장도 역임하셨던 고 윤덕선 박사님께서 그 자금을 쾌히 지원해

*본 원고는 한국의학도서관협의회 제34회 학술대회 및 사단법인 출범식 특별강의를 했던 원고입니다.

주시어 그 재단 소속인 한국의과학 연구소와 협의회 공동 명의로 출판된 의학 관계 잡지 종합 목록 초판을 발행하였고 이를 회원 도서관 뿐 아니라 대학도서관 등에 판매하여 어느 정도 재정이 형성되고 기틀을 잡아나갈 수 있었습니다.

창립 당시에도 한국 도서관 협회와는 관계없이 사단 법인체로 등록하려 하였으나 당시의 국가 시책으로 유사 단체를 통폐합하던 시대였기 때문에 편법으로 도협의 하부 조직으로 설립했던 것이 34년이 지난 이제 목적이 달성된 것입니다.

협의회 창립당시와 현재의 의학도서관 환경의 변화를 대비해 보면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당시에 의과대학은 10여 개 대학에서 현재 41개 대학으로 늘어났고 본협의회 회원 도서관 수는 30~40개처에서 150개처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장서면에서 가장 앞서간다 할 수 있는 서울, 연세, 가톨릭의대 도서관의 잡지 구독 종수는 200여종에서 1,000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국내 대학에서 발행되는 의학 잡지 수는 40여종에서 현재 약 200종 이상으로 증가하였습니다.

과학사인 Price가 주장한 50년마다 과학잡지가 10배씩 증가하였다는 수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한 변화가 있어왔습니다.

무엇보다도 도서관 정보 봉사의 방법론적 변화는 그 크기를 표현하기 쉽지 않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국립도서관에서 Index Medicus의 편집, 출판이 수작업에 의하여는 한계에 부딪혀 기계화한 것이 정보처리에 컴퓨터를 이용한 효시가 되었고 1965년에 MEDLARS가 생산되기 시작하였고 1971년에는 온라인으로 원거리 컴퓨터 정보검색이 시작되어 MEDLINE이 출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협의회가 창설된 60년대에는 컴퓨터에 의한 정보처리는 문헌에서나 볼 수 있는 꿈같은 일이었으나 현재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을 빼놓고는 도서관의 정보 봉사는 존재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하였습니다.

따라서 도서관 현장의 정보매체나 정보봉사

면의 변화는 물론 문헌정보학의 연구나 교육내용도 상당한 변화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컴퓨터와 정보통신의 이용은 특수전문가의 영역이 아니고 누구나 그 이용이 생활화되어 가고 보편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도서관에 의지하지 않고도 직접 온라인 정보 검색을 실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사서가 컴퓨터로 정보를 검색해 주는 것으로 전문가를 자칭할 수 있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사서의 정체성과 전문성은 어디서 찾아야 할 것인가를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시기라 생각합니다.

도서관 사서의 기능은 궁극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정확하고도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라 볼 때 사서의 전문성은 주제 전문의 배경에서 찾아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용자의 정보요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요구에 적합한 정보를 식별할 수 있는 능력이 정보봉사의 성패를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사서직 교육은 주제 전문 사서를 배출하는 것을 첫째 목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의학과 법률 도서관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은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고 사서직이 확립된 이후 계속되어 온 논제였습니다만 정보량의 폭발적인 증가로 그 속에서 꼭 맞는 정보를 찾아낸다는 것이 쉽지 않게 된 현재의 상황에서 주제전문사서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정보를 축적하고 검색하는 일을 컴퓨터가 하는 시대에서 사서는 가치 있고 정확한 정보를 가려 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주제전문사서가 되어야만 앞으로 사서직이 전문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미국에서는 원래 의학과 법률정보는 주제의 전문성이 강하여 일반적인 도서관학의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효과적인 봉사가 불가능하다는

인식하에 주제전문으로 특화시킨 교과과정을 개설하여 의학과 법률 사서를 교육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의과대학교에 의학도서관대학을 설립하고 의사 양성과 같이 5년 과정으로 하여 3년간은 기초의학과 임상 의학을 이수하고 나머지 2년은 의사가 될 사람은 임상 의학을, 의학사서가 될 사람은 의학도서관학과 정보학을 이수하여 의학사서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의학도서관 및 정보대학의 학장은 의학도서관의 관장을 겸하고 있어 이론과 실습을 통합한 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개발되어 정착이 된 LATCH Program (Literature Attached the Chart)은 환자의 의무기록카드에 그 환자의 질환에 대한 중요한 문헌을 도서관에서 검색하여 부착시켜 줌으로써 그 환자를 관리하는 진료팀이 손쉽게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봉사방법입니다. 이 봉사의 결과를 보고한 문헌에 의하면 이 봉사를 실시함으로써 문헌검색 의뢰가 417%가 증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 도서관을 운영하면서 이용률이 4배 이상 상승할 수 있는 봉사방법은 그 도서관의 목적달성에 크게 공헌한 것이며 그만큼 환자들이 이 봉사 이전보다 4배 이상으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았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로 미루어 보더라도 정보 봉사의 성패는 사서의 활동과 능력이 좌우한다는 사실이 인정될 것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가능하려면 주제전문가적 자질을 갖추어야 할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의학주제 전문사서라는 개념이 확립되기 위하여는 의학도서관협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협회에서 자격제도를 수립하고 의학도서관에서 의학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도록 하고 의학사서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의 교과과정의 개설 등에 협회 영향력을 행사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는 의학사서 자격제가 독립되어 있

고 초기에는 도서관·정보대학원에 의학 사서직을 위한 교과목을 지정하고 그 과목을 이수한 사람에게 의학사서 Grade I의 자격을 부여하였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육기관에서 의학도서관 과목이 확장되고 관심이 확대되었다고 합니다.

1949년에 시작한 자격증 제도는 Grade I, II, III의 3등급으로 구분하여 실시되었으나 1974년에 자격증 제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여 현재는 평생제의 자격증을 폐지하고 5년마다 계속 교육을 받고 재교부를 받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그만큼 의학사서의 전문성이 크게 강조되는 것이며 미국에서는 의학사서 중에서도 임상 의학사서(Clinical Medical Librarianship) 제도까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임상 의학사서 제도는 삼성서울병원 의학정보센터에서 실험적으로 실시하여 성공적이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기술한 의학 주제 전문 사서의 양성을 위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협의회에서 의학사서자격 제도를 개발하여 실시할 것을 제안합니다.

자격증은 국가자격만이 가치 있는 것이 아니며 의학도서관에서 의학사서 자격증 소지자를 채용하는 것이 보편화된다면 협회회의 자격제도 국가자격제도 이상의 효력이 있게 됩니다. 병원협회와 공동으로 자격제도를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입니다.

의학사서 자격제도 개발과 함께 문헌정보학과에는 협의회에서 의학 사서직에 필수가 되는 교과목을 지정하여 그 과정을 이수한 사서에게는 의학사서 자격증을 준다면 이를 위하여 각 대학이 의학도서관 관계과목을 개설할 것이고 따라서 의학도서관 사서의 전문성이 제고될 것이며 이는 의학도서관의 발전과 함께 의학발전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울러 협의회에서는 의학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교육의 기회를 많이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의학사서의 계속교육 프로그램은 어떤 대학의 문헌정보학과에 위탁하는 것

4 한국의학도서관 : 제 29 권 제 1,2 호 2002

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에서 문헌정보학과의 의학도서관 과목의 강의는 의학도서관의 의학사서들이 대부분 맡고 있다고 합니다.

의학사서직 교과과정이 확산될 때를 대비하여 의학도서관의 사서들은 석사 이상의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이에 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학위과정 이수는 계속교육의 한 방법으로도 바람직한 것입니다.

참 고 문 헌

1) AMLA. Handbook of Medical Library Practice, 3rd ed., 1974.

- 2) Cimprl, Kay. Clinical Medical Librarianship; A Review of Literature, Bulletin of Medical Library Association 1985;73(Jan.): 21-28.
- 3) Groen, Frances and Dizihi Xiong. Education for Medical Librarianship; A Comparative Review of Education for a Profession in Transition. Journal of Education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994; 35(winter): 40-48.
- 4) Smith, Linda. Education for Health Sciences Librarianship, Science and Technology Libraries 1998; 17(2): 59-80.
- 5) 윤영대. 의학도서관의 임상의학 정보봉사에 관한 연구, 도서관, 46(5), 1991.
- 6) 조혜민, 김남진. 의학사서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임상의학 사서제 도입운영, 한국의학도서관, 25(2), 1998.